

# 다문화주의 가치를 ‘팔달’하는 휴먼시티 수원을 기대하며

※ [팔달]: 길이 팔방으로 통하여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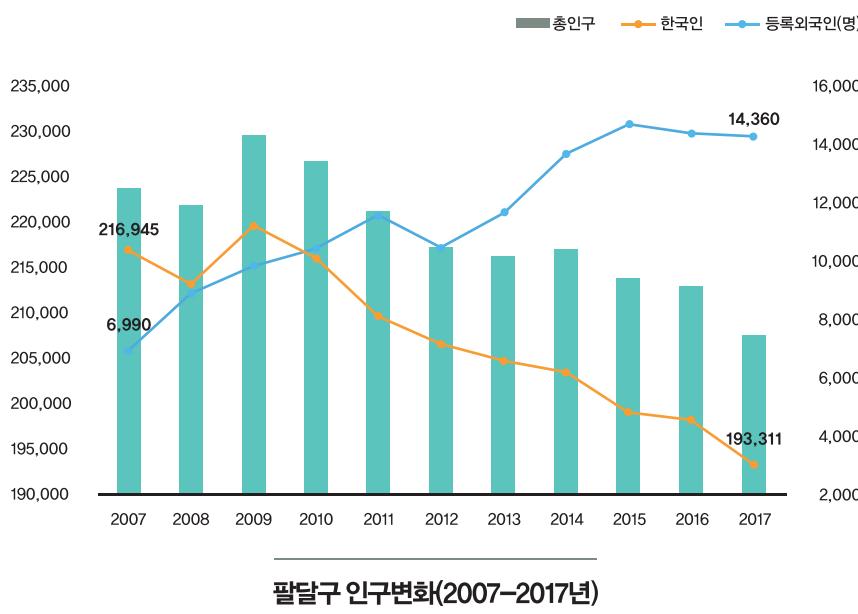
문현아\_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젠더와 이주, 돌봄 노동의 가치 존중, 사회적 돌봄, 돌보는 남성성, 청년세대 문화와 돌봄 등이 주요 관심 분야이다. 주요 역서로 「커밍업 쇼트」(2020, 공역),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2016, 공역), 「세계화의 하인들」(2009) 등이 있다.

## 글로벌 이주 시대, 다문화 도시 수원

이 글을 준비하며 수원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휴먼시티’를 지향하는 수원은 개방성을 강조하며 품격 있는 열린 시민이 살아가는 ‘사람이 반가운’ 도시라고 한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궁금했다. 2022년 시점으로 수원 인구는 대략 120만 명 정도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의하면 그중 외국인 주민은 66,490명으로 수원시 주민등록인구의 5.4%를 차지한다. 안산시에 이어 전국 2위다. 수원의 상징인 팔달문이 자리한 고등동은 수원시 내에서 외국인 주거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를 반영하듯 팔달구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중 중국 국적 동포가 이곳 거주민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조가 화성을 축조할 시기 상업도시로의 면모를 갖추면서 외지로부터 많은 이주민이 유입되었던 과거와도 연결된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 이런 경향 속에서 수원 팔달구는 글로벌한 로컬(global-local)로 변화하고 있다. 팔달구의 국내인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 규모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 다문화의 진정한 의미

21세기는 ‘글로벌 이주의 시대’로 불린다.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점점 커지며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주가 밀접한 현실로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다. 2022년을 기점으로 세계적 이주 인구는 대략 2억 8천만 명 규모다. 지구에 사는 인구 77억 명을 고려하면 3.6%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수원시의 외국인 비중 5.4%는 지구 평균을 웃도는 수치다. 이주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규모가 미치는 전 세계적 파급력은 매우 크다.

다문화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다양성’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한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다문화주의는 국경을 단위로 구획된 국가별 문화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비판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런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은 문화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가치를 확산하고 다양한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들을 동등하게 존중하며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 근간을 생략한 채 적용되어 특정한 범주의 사람들,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이주민들을 ‘다문화’ 범주의 사람들로 특화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즉 단일민족이라는 신화, 단일언어 사용에 기반한 한국적 문화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이 시도된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라는 어떤 ‘문화’는 고정불변으로 존재하고 이와 별개로 ‘다문화’라는 또 다른 문화가 병행한다는 접근이 시도된 것이다.

수원역 앞에 자리하고 있는 ‘다문화푸드랜드’가 그 예다. 이곳에서는 베트남, 태국,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의 음식을 맛볼 수 있지만, 한국 음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문화는 한국(인)과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별개의 문화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외국인들이 중심이 되는 외국 음식이 다문화푸드가 아니라, 그들의 음식과 한국 음식이 나란히 한자리에 모여 각각의 특색과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다양성의 의미를 되새기는 곳이 다문화푸드랜드가 되어야 한다. 다문화주의는 서로의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지, 하나의 문화가 주류화되고 또 다른 문화는 소수화되어 주변부 문화로 남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가능성을 더 확대·심화해 간다는 의미이고 이런 맥락에서 다문화 관련 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 휴먼시티 수원, ‘팔달’하는 마음으로

정조가 화성으로 수도 이전을 고려했던 마음은 서울 중심을 벗어나 새로운 터를 기반으로 더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담으려는 바람이었을 수 있다. ‘단일’한 문화를 강조하던 한국 사회를 성찰하고 다양한 문화를 폭넓게 받아들이는 새로운 다문화주의 중심의 도시가 가능하다면, 그곳은 화성의 마음을 이은 수원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새롭고 다문화적인 한국 문화가 ‘팔달’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의 더 다양한 문화 역시 ‘팔달’하게 수원을 통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덧붙여, 정조가 수원화성을 축조할 때의 치적 여지 중에서 ‘철저한 임금지급’ 원칙을 기억하면 좋겠다.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에 대해 ‘이주 노동자 임금 차별 및 체불’이라는 서글픈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다문화주의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많은 차별적 장벽이 존재한다. 이것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종, 장애, 세대, 국적, 종교, 성적 지향 등 일상의 경계들이 다양한 문화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장벽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그 열린 마음에 정조의 애민정신이 바탕이 될 수 있다. 전통시대에 ‘백성’으로 불리는 범주가 존재했다면, 글로벌 시대의 수원에는 ‘휴먼’의 범주에 ‘이주민’이 포함된다.

정조의 마음이 담긴 이 ‘휴먼시티’의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어 서로 소통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품격 있는 수원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로막는 경계와 장벽을 허물고 다문화주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길 바란다. 다문화주의 가치를 ‘팔달’하는 사람들이 되어 화성 축조의 의미를 오늘날에 되살리길 꿈꾼다. 수원이 이주민, 낯선 방문객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멋진 다문화주의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희망한다.

### \* 참고문헌

장유정·이영민. 2019. “도시 내 이주자 밀집공간의 특성과 상호문화도시 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수원시 팔달구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3):1–18.  
DOI: <http://dx.doi.org/10.21189/JKUGS.22.3.1>